

2019년 4월 21일

시편 27편(새번역)

- 1 주님이 나의 빛, 나의 구원이신데,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?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,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?
- 2 나의 대적자들, 나의 원수들, 저 악한 자들이,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.
- 3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, 나는 무섭지 않네.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,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.
- 4 주님,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.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.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,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.
- 5 재난의 날이 오면,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 주시고,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,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 주실 것이니,
- 6 그 때에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,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.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,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.
- 7 내가 주님을 애탏게 부를 때에, 들어 주십시오.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, 응답하여 주십시오.
- 8 주님께서 나더러 "내게 와서 예배하여라" 하셨을 때 "주님,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" 하고 대답하였으니,
- 9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.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.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.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. 나를 버리지 마시고,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.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.
- 10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,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.
- 11 주님,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.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,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.
- 12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,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,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.
- 13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,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.
- 14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.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.

머리글에 나오는 저자명

	제1권 (1-41편)	제2권 (42-72편)	제3권 (73-89편)	제4권 (90-106편)	제5권 (107-150편)
모세 (1회)				90편	
다윗 (73회)	3-32; 34-41편	51-65; 68-70편	86편	101;103편	108-110;12 2;124;131;1 33;138-145 편
솔로몬 (2회)		72편			127편
아삽 (12회)		50편	73-83편		
코라의 자 손들(11회)		42-49편	84-85; 87-88편		
여두튼 (3회)	39편		62;77편		
헤만 (1회)			88편		
에탄 (1회)			89편		
작자미상 (34회)	1-2; 33편	66-67; 71편		91-100; 102; 104-106편	107;111-12 1;123;125-1 26;128-130; 132;134-13 7;146-150편

시편 전체의 구조

권별	시편	편수	종결 찬양
1권	1-41편	41	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님, 찬양을 받으십시오.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. 아멘, 아멘.
2권	42-72편	31	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, 이스라엘의 하나님,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.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. 아멘, 아멘. 이 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.
3권	73-89편	17	주님,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. 아멘, 아멘.
4권	90-106편	17	주, 이스라엘의 하나님,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. 온 백성은 "아멘!" 하고 응답하여라. 할렐루야.
5권	107-150편	44	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. 할렐루야.

부 활 절

- 홍수희

주님,
저로 하여
하루에 한 번 씩 죽게 하소서

오늘 하루도
나의 죄 무거웠으니
당신이 가리키는 곳
애써 피하고

내 시선이 즐거운 곳에
머물렀나이다
당신이 인도하시는 음성에
마음의 빗장을 닫아
내 육신에 즐거운 말만
주고받았나이다

하루에도 수십번 뱉었을
차가운 말과

하루에도 수십번 돌렸을
내 차가운 등을

주님,
오늘 밤
무릎 끊은 침상에서 죽게 하소서

날이면 날마다
그 날의 밤이 내게는
깜깜한 무덤이 되게 하시어

어김없이 밝아오는 아침이
부활의 새벽이 되게 하소서

그리하여 주님,
저로 하여 하루에 한 번 씩
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